

부산 극단 공간아트컴퍼니의 'Happy and Dim'



# 전국 극단들 광주서 새로운 '관'을 벌이다

### '대한민국 소극장 페스티벌' 내일부터 광주콘텐츠산업지원센터 부산 등 6개 시·도 극단 참여... 푸른연극마을 '한남자' 오프닝 공연

10여년간, 광주 푸른연극마을의 오성완 대표 등 지역의 중견 연극인들이 부산에 모였다. 대부분 창작극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자기 극단만의 강한 색깔을 갖고 있는 팀들이었다.

오랫동안 각 지역에서 활동하며 교류를 해왔던 이들은 뭔가 새로운 '관'을 모색했다. 서울을 제외한 지방 극단과 소극장들의 연대. 이후 행사가 진행됐지만 단발성으로 끝나고 말았다.

개별 단체들끼리 간간히 교류 사업을 진행하던 이들은 지난해 다시 모임을 꾸리고 '대한민국 소극장 페스티벌'을 시작했다. 참여 단체는 '극단 푸른연극마을'(광주), '극단 한울림'(대구), '극단 명태'(전주), '극단 공간아트컴퍼니'(부산), '극단 도모'(춘천), '극단(사)-문화창작집단 공터다'(구미) 등 6개.

공극적인 목표는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의 대표 극단들이 모두 참여하는 축제를 꾸리는 것이다. 현재 6개 단체 이외에 청주와 대전 등 4~5개 도시에서도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

지난해 극단 사정으로 '대한민국 소극장 페스티벌' 첫번째 행사를 함께하지 못했던 푸른연극마을이 광주에서 두번째 행사를 진행한다. 28일부터 7월13일(평일 오후 7시30분·토요일 오후 4시)까지 광주 콘텐츠산업지원센터(사직 공연 옛KBS광주방송총국).

오프닝 공연은 푸른연극마을의 '한남자'다. 80년 5월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남자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해강씨의 소설을 오성완씨가 재구성했으며 이당금씨가 연출을 맡았다. 푸른연극마을은 '한남자'를 부산 등 5개 지역 소극장에서 공연한다.

공간아트컴퍼니의 'Happy and Dim'(7월2~3일)은 사랑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담고 있다.

대구 극단 한울림이 무대에 올리는 '안녕 다온아'(7월5~6일)는 상처를 안고 있던 세사람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따뜻하게 그린 작품이다. 집을 나간 엄마로 인해 실어증에 걸린 다온, 그런 딸과 함께 어둠 속에서 일어나오지 못하는 아빠 도진, 다온의 집으로 봉사 나온 하얀이가 그 주인공이다. 김정원·김은정씨 등이 출연한다.

구미 극단의 '종이 풍선'은 일본 대표 극작가 기시다 구니오의 작품이다. 말 한마디 때문에 부부싸움을 시작한 남녀 주인공이 꿈과 현실을 넘나드는 '여행놀이'를 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전주의 '명태'는 유명 작품 '신의 아그네스'(7월

12~13일)를 무대에 올린다. 마지막 공연인 춘천 극단 '도모'의 '연극바보들'(7월16~17일)은 연극에 빠진 이들이 주인공이다. 사랑하는 사이지만 연극에 있어서만은 절대 양보가 없는 두 사람의 좌충우돌 인생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푸른연극마을의 공연이 열리는 29일 공연 후에는 관객과 배우가 함께 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티켓가격 전석 2만원. 푸른연극마을 카페와 '위메이크프라이스'를 활용하면 할인된 가격에 예매할 수 있다. 문의 010-6610-0525.

오성완 푸른연극마을 대표는 "각 극단이 십시일반 힘을 더해 마련한 공연으로, 기쁨을 확실하게 나눠 후 지원금 등을 신청할 것"이라며 "타 페스티벌과 차별화되는 축제로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춘천 극단 도모의 '연극바보들'

## 로터스갤러리, 젊은 창작인에 프리포즈

### '신인작가 릴레이 기획전' 설박·박성완·양나희·김민유·배수민 선정

대한불교조계종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가 광주·전남지역 신인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신인 작가 릴레이 기획전'을 연다.

로터스 갤러리는 해마다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작가 5명을 선정, 7~8월 두 달간 릴레이 형식으로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여 작가들에게는 창작지원금이 지원된다. 참여 작가는 장르나 출신대학, 성별을 고려하지 않고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펼쳐면서 발전 가능성이 큰 신인 작가 위주로 선정할 방침이다.

로터스 갤러리는 개관 4주년을 맞아 중견 작가들의 전시에서 탈피해 어려운 창작 여건 속에서도 작가의 길을 걷고 있는 청년 작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기획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제1회 신인 작가 릴레이 기획전' 참여 작가는 작업실 방문과 인터뷰 등을 통해 선정된 설박(여·29·한국화), 박성완(29·서양화), 양나희(여·31·서양화), 김민유(여·24·서양화), 배수민(26·조각)씨 등 20~30대 작가 5명이다.

설박(7월1~13일)씨는 화선지에 먹을 먹인 종이를 찢어, 중첩시켜 붙이는 콜라주 기법으로 동양화 특유의 여백의 미와 먹의 농담이 강조된 현대적인 느낌의 관념산수를 선보인다. 일상적인 풍경을 담담한 어조로 표현하고 있는 박성완(7월14~26일)씨는 '구도창' 시리즈를 통해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공사 풍경에 작



왼쪽부터 배수민, 김민유, 설박, 양나희, 박성완씨.

가의 의식을 은유적으로 투영한다.

김민유(7월27일~8월7일)씨는 플라스틱을 소재로 유년기의 향수를 되살리고, 양나희(8월8일~8월20일)씨는 골판지를 활용해 양동동과 무등산 등의 풍경을 그렸다. 배수민(8월21일~9월1일)씨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굴의 예술혼을 불태웠던 반 고흐, 프리다 칼로 등의 초상에 시트지를 붙여 청년작가의 고뇌를 표현했다.

무각사 주지 청하 스님은 "이번 기획전을 시작으로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가 광주 지역 문화, 미술계를 이끌어갈 신인 작가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장이 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전시 오프닝은 7월1일 오후 6시 30분이다. 문의 062-383-0108. /김정민기자 kki@

## 체 게바라의 나라 쿠바를 본다

### '영화로 떠나는 쿠바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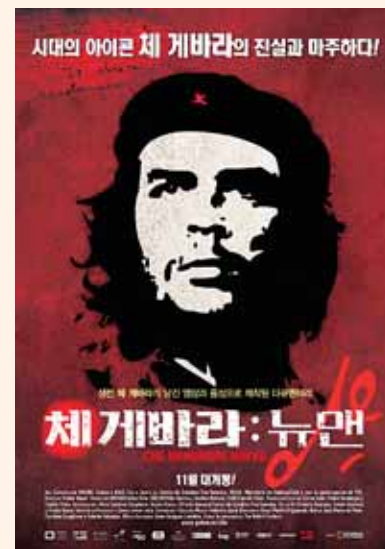
### 27~29일 광주극장·메이홀

체 게바라, 시가, 그리고 쿠바. '영화로 떠나는 쿠바여행'이 27~29일까지 광주극장과 문화공간 메이홀에서 열린다.

광주극장에서는 쿠바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송일근 감독의 다큐 '시간의 춤'(27일 오후7시30분)과 트리스탄 바우에르의 다큐 '체 게바라: 뉴맨(시진)'(28일 오후 7시30분)을 만날 수 있다. '뉴맨'은 첫 공개되는 체 게바라의 육성 자료와 다양한 증언을 통해 체 게바라의 진면목을 만날 수 있는 작품으로 문성근이 내레이션을 맡았다.

29일(오후7시30분) 상영작은 쿠바와 뉴욕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연인의 사랑 이야기를 풍부한 색감과 라틴 재즈로 담아낸 애니메이션 '치코와 리타'다.

'체 게바라: 뉴맨' 상영에 앞서 '쿠바여행'(신나라) 음반을 낸 임의진 메이홀 관장과 인디밴드 바다프로젝트의 특별한 이벤트가 열린다. 또 극장 로비에서는 한희원·김해성·리일천·고근호씨 등 지역 작가들의 여행일서와 음반, 쿠바산 럼주 등을 판매한다.



메이홀에서는 쿠바 청년과 한국 여자의 연애 이야기를 그린 정호현 감독의 '쿠바의 연인', 올리버 스톤 감독의 다큐 '피델 카스트로를 찾아서'가 29일 오후 5시부터 연속 상영된다. 영화 상영 후에는 쿠바를 다녀온 이들의 소박한 여행담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한다.

문의 광주극장 062-224-5858, 메이홀 010-6791-805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지역작가 3인 우수문학도서 선정



지역 출신 3명의 작품집이 문학나눔이 주관하는 2013 상반기 우수문학도서로 선정됐다. 문학나눔 심사위원회는 최근 151종을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박두규 시인 '두툼나무 숲, 그대'(문학들 간), 정강철 소설가 '수양산 그늘'(문학들 간), 조성국 시인 '동근진동'(도서출판 예지 간)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두툼나무 숲, 그대'는 1985년 남민시 창작동인으로 활동을 시작한 박두규 시인의 네 번째 시집으로 섬진강에 대한 단상을 담고 있다. 박 시인은 "세상과의 불화를 뛰어넘고, 그 불화까지도 체화하는 궁극의 세계와 자유를 탐색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수양산 그늘'은 1989년 광주일보보신문에 출간 정강철 소설가의 작품으로, 삶의 다양한 모습을 결속한 입담으로 풀어낸 단편집이다. 정 작가는 "앞으로도 날 카로운 현실 인식과 깊은 페이소스로 삶의 이면에 드러워진 모습을 그려내고 싶다"고 밝혔다.

'동근진동'은 광주의 상처를 주목해온 조성국 시인의 작품집으로 삶에 대한 희망을 담고 있다. 조 시인은 "자연, 인간, 우주에 대한 사유를 통해 시 세계를 확장하고 싶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

since 1982

##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코잔드침대**  
온열, 안마

이승엽침대  
코잔드 201 진동안마침대  
프레임 A6247

코잔드침대 온열, 안마침대 이승엽침대

**소파 60종류**

**이태리엔틱 식탁, TV장**

지하~2층 소파, 식탁 전문매장 3층 온열, 안마, 단롭침대 4,5층 50%할인매장

NAVER **홍스페이스** www.hong79.com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터리 58-15 홍스페이스 가구빌딩

**홍스페이스** 1899-0240